

# 제 출 문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중·고등학생 인식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 06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우대현 (인)

의원연구단체 “소통하는 SNS”

이진련의원

김동식의원

김성태의원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중·고등학생  
인식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2. 06

연구수행기관 책임연구원

김 정 순(대구대학교 겸임교수)

참여연구원

임 삼 조(계명대학교 외래교수)

# 요 약 문

## I. 제 목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중·고등학생 인식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연구·현장사업은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발굴된 여성들은 주로 임봉선·이선희처럼 3·1운동에 참여하거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정철성·현계옥 등처럼 일제강점기 전국적 명성을 갖추고 독립운동사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독립운동가 정도이다. 여성독립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직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연구가 걸음마이기 때문에 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한 인식정도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인식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의 현장 사업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룩했지만, 인식정도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전문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가 성과물을 만들고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은 이것을 수용하는 프로세스로 현장 사업이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알고 싶고,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싶고, 어떻게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이미지(인상)’, ‘인지 여부와 인지도’, ‘접촉 경로와 빈도’ 등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해 첫째, 대구의 여성 독립운동 및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잘 이해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을 개발한다.

셋째, 대구 중·고등학생에게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대구인으로서

자긍심과 시민의식을 높이고, 대구시민으로서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한다. 넷째, 대구광역시의회·대구광역시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조례 제정, 정책 입안 및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문화·관광자원 개발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Ⅲ. 연구내용 및 범위

#### 1. 연구내용

대구지역의 중·고등학생의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과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 대구지역의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요구 정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모집단은 대구지역의 중·고등학생 집단이며,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2022년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일간 대구지역 중학생 310명, 고등학생 310명, 여학생과 남학생을 적절히 안배하여 전체 6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다. 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자가 자기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610부였다. 이중 무응답 항목이 있는 경우와 응답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535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3. 조사도구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구조화된 질문 40문항과 개방형 질문 1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 문항은 총 41문항이다. 이중 일반적인 특성은 3문항,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의 정도 7문항, 대구에서 발생한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정도 7문항, 대구에서 활동한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정도 14문항,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필요성과 요구의 정도 4문항, 그 외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등을 묻는 문항 6문항과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좋은 방안에 대한 개방형 질문 1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IBM SPSS23/PC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목적에 맞추어 통계분석을 하였다.

####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의 중요성과 그 당위성, 활용 방안, 인식향상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2022년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유효 설문지 53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4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전체 조사대상자 535명 중 학교분포는 중학생이 288명, 고등학생이 247명 성별분포는 여학생 309명, 남학생 226명이다.

##### 1.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

가장 높은 자기인식을 나타낸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평균 3.05로 나타났고,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자기인식이 1.9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점수별로 보면 독립운동에 대한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 3.05,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 2.58, 대구지역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 2.42, 대구지역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 2.23,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 2.10,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 2.08,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자기인식 1.9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은 자기 스스로 여성독립운동보다 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여성독립운동가와 비교해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구독립운동보다 전반적인 독립운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남학생의 자기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독립운동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독립운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교육을 더 많이 경험한 고등학생이 독립운동에 대한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은 것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를 평균점으로 비교해 본 결과, 실제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의 인식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지식에 비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자기인식은 2.08이지만, 대구지역 개별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는 1.87에 불과하였다.

## 2.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의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으로 2.33점이었고 가장 낮은 인식도를 나타낸 것은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에 대한 인식도 1.65점을 나타내었다.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에 대한 인식도는 2.30으로,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 다음으로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내었다. 조선의 열단에서 여성의 활약에 대한 인식도는 2.06, 근우회에서 여성의 활약에 대한 인식도는 2.00으로 낮았다.

따라서 3·1운동 등과 같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면서, 가장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에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의 인식정도에서 유일하게 국채보상운동은 근소한 차이지만, 여학생이 유일하게 남학생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는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도를 나타냈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가 전체평균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인물은 임봉선(1.83)이며, 유인경(1.59)이 가장 낮았다. 이를 순서대로 보면, 임봉선(전체평균 1.83),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 남영실(전체평균 1.66), 이남숙(전체평균 1.64), 정칠성(전체평균 1.64), 한연순(전체평균 1.63), 정경주(전체평균 1.63), 이희경(전체평균 1.61), 한태은(전체평균 1.61), 현계옥(전체평균 1.61), 김귀임(전체평균 1.60), 유인경(전체평균 1.59)이다. 현계옥과 정칠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김귀임·유인경 등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

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 4.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인식향상을 위한 활동의 필요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와 대구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해 교육과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와 활동들을 발굴하는 것에 대한 필요정도를 조사하였다. 교육과 발굴 모두 비교적 필요성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보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이 전체 평균 3.15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대구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이 전체평균 3.14,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활동과 인물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평균 3.12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유적지 발굴에 대한 필요정도는 전체평균 3.11, 유적지가 있다면 탐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평균 2.77로 다른 문항에 비교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성별과 학교별로 필요정도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활동과 인물의 교육과 발굴에 대해 더 높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대구독립운동기념관·대구여성독립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지역의 중·고등학생의 대구독립운동기념관과 대구여성독립기념관에 대한 필요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4점 만점에 3.17로 매우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구독립운동기념관보다 낮은 인식정도를 나타내었으나 80% 이상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립운동기념관의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여학생 3.18, 남학생이 2.77) 대구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정도(여학생 3.25, 남학생 3.06)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대구독립운동기념관과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 남학생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가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의 인식에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 6.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알게 된 경로 연구 결과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알게 된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교과서로 35%(187명)를 나타내었고 두 번째는 유튜브 30.3%(162명), TV는 13.6%, 기타가 12.3%, 교과서 외 책은 8.8% 순이었다. 대구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준 경로가 학교의 교과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7.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것은 유튜브 41.3%, 다음으로 교과서 27.1% 차지하였다. TV 14.8%, 여성독립운동 기념관 건립이 그 뒤를 이어 10.3%를 차지하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는데 유튜브와 교과서 등을 이용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은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널리 알리는데 좋은 방안이나 의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였다. 첫째, 유튜브·TV와 같은 영상매체의 활용이다. 압도적으로 여러 연령대가 모두 사용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만들어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뿐 아니라 유명 유튜버를 섭외해 영상을 제작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단순 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방영하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교과서와 학교 프로그램 활용이다. 교과서에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내용을 싣고, 학교 수업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 수업뿐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학교 행사·특별교육·영상교육 등을 활용해 학생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 복도에 독립운동가의 사진·이름·업적 등을 적어서 전시하면 많은 학생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셋째, SNS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MZ세대에 익숙한 SNS가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 보고 있었다. 마지막, 소수이지만, 거대 동상 건립, 영화 제작, 여성독립운동가의 마스크트·캐릭터 만들기, 유적지 탐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들이 유튜브·TV와 같은 영상매체 다음으로 교과서와 학교 프로그램 활용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즉 정책 입안자나 개



발자는 연령별·계층별·직업별로 다양한 수요를 파악한 후 정책을 시행해야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본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 V.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한 건의

### 1. 독립운동의 ‘성지’ 만들기

대구는 대한제국기 ‘경제구국운동’이라 불리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대한광복회·조선의열단 등의 활동 근거지이며 독립유공자 123명을 배출하였다. 또한, 대구형무소 순국자 가운데 정부로부터 서훈받은 독립운동가가 176명으로 서울 서대문형무소보다 많다. 대구를 독립운동의 ‘성지’로 만들자는 공감대도 역시 형성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역시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현창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인 컬러풀 대구에 「대구를 빛낸 여성 독립운동가」를 만들어 정철성·이선희 등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 ‘3·1운동 유공자벽’을 조성해 여성독립운동가 9명을 알렸다. 또한,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에서 가장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성명중학교·신명고등학교 벽에 신명학교 출신 여성독립운동가 부조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대구 여성독립운동인물사』를 출간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책자 발간·독립운동 유적지·독립운동가 기념비·유튜브 및 SNS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독립운동 현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채보상운동, 대구3·1운동 등 위주로 현창사업이 치우쳐져 있어, 대한제국기부터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일어난 대구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여러 종류의 독립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대구광역시는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조선의열단·혜성단·태극단·주먹단 등 독립운동단체, 대구고등보통학교(현 경북중·고등학교)·계성학교(현 계성중·고등학교)·신명학교(현 성명중·신명고등학교)·대구상업학교(현 상원고등학교)·대구사범학교의 학생운동 등에 대한 현창사업을 통해 대구지역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대구인으로서 자긍심과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

### 2. 근대문화유산의 ‘메카’ 조성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문화유산 상징화를 통한 대구 문화정체성 확립’을 중요한 목표

로 삼고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이 관광정책과 결합해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대구광역시이다.

첫째, 산업과 결합한 탐방 문화 조성이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는 ‘대구여성탐방로 반지길’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상호존중하는 좋은 경영대상’에서 여성과 함께하는 좋은 정책 부문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대구여성탐방로 반지길’이 만들어짐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대표적인 산업 기반인 ‘금은보석산업’이 달라지고 있다. ‘대구여성탐방로 반지길’과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의 일종으로 대구 반지공방이 만들어지고 대구 반지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새로운 관광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둘째, 여성독립운동 박물관·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성독립운동가 기념관이 건립 혹은 계획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2020년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관이 전국 최초로 건립되었다. 온라인에서는 여성기록전시콘텐츠,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소개하고 있다. 근대시기 대구에는 신명학교·대구여자보통학교(현 경북여자중·고등학교) 등 여성중등교육기관 소속 여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발굴·연구·현장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대구 역시 광역시 단위에서 ‘최초’로 온·오프라인으로 여성독립운동 박물관·기념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대구독립운동기념관 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섹션을 구축해야 한다. 대구에서는 민·관이 2025년을 목표로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을 조성하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대구에서는 대구독립운동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기념관의 전시 공간이 설계될 때부터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섹션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여성독립운동 유적지를 발굴하고 탐방로를 만들어 탐방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성독립운동가 개별 유적지, 대구3·1운동 여성독립운동 유적지, 신명학교 출신 여성독립운동가 유적지 등 다양하게 개발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청소년 및 시민 교육

현행 청소년 교육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는 바로 민주 시민 육성이다. 사회과에서 육성하

고자 하는 민주 시민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결국, 민주시민은 자기 주인성과 주체성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춰야 한다. 이때 필요한 교육이 바로 독립운동이다. 특히, 여성독립운동가 가운데 근대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많았고, 주로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사회변혁의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청소년 교육 및 시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독립운동 관련 비교과 과목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설문조사에 응한 중·고등학생 가운데 교과서를 제작하거나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루 7시간 이상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출간한 초등교육용 『참 좋은 우리 대구』, 중학생용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처럼 『대구 여성독립운동가』라는 제목으로 비교과 교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주인성’과 ‘주체성’을 길러내어야 한다.

둘째, 여성독립운동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해야 한다.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등이 사용하는 유튜브와 같은 채널을 활용하면 된다.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영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연극·뮤지컬·웹툰 등 예술 분야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 즉 연극·영화·영화와 같은 영상매체, 웹툰과 같은 시각 매체 등으로 만들어 교과 및 비교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영역의 ‘융합 선택’ 분야에서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역사 콘텐츠와의 대화’라는 교과목이 개설된다. 두 교과목에서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과-비교과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 4.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의 제정·시행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대구광역시의회가 2007년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년 제2차 개정, 조례 제5222호), 2021년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조례 제5633호)와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조례 제1601호) 등을 제정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정신 진흥 관련 현창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각종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입안 및 선양에 잘 반영되어야 조례 제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현재 대구광역시의회가 대구 독립운동정신을 진흥하고 선양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는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지원,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해 놓았다. 본 사업들이 좀 더 효과성을 높이려면 ‘여성독립운동 지원 조례’, ‘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및 관리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이때 본 연구와 같은 자료를 활용해 조례를 제정해 법안의 시행 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5.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보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발굴 및 소개, 책자 발간, 박물관·기념관 건립, 유적지 발굴 및 탐방로 구축, 콘텐츠 및 문화상품 개발 등이 성공하려면 ‘예비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 전문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는 ‘설문 조사’의 형태로 대구시민의 인식정도와 요구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용 『대구지역 독립운동사』,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사』 등과 같은 역사 서적 발간 시 ‘설문조사’를 해 집필 기준 및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 **6.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여성독립운동의 ‘모멘텀’ 확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한 연구와 현창 사업은 이제 첫 삽을 떴다. 성공적인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정책을 확립하려면 민·관 협동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독립운동계승사업회·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 대구광역시의회·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대구향토역사관·대구근대역사관·대구교육박물관·대구2·28민주운동기념회관 등 박물관·기념관 등이 함께 독립운동가 발굴, 아카이브 구축, 현창 사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

## 7. 후속 작업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은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유튜브(41.3%), 교과서(27.1%), 여성독립운동기념관(10.3%) 등을 활용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학생들은 의외로 교과서에서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따라서 후속 작업으로 교과 및 비교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제작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목 차

I. 서론	3
1. 연구개발의 필요성	3
2. 연구개발의 목적	4
II. 연구내용 및 범위	7
1. 연구내용	7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7
3. 조사도구	8
4. 분석방법	8
III. 연구 결과	13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13
2.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13
3.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의 활동의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	22
4.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	31
5.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인식향상을 위한 활동의 필요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	52
6.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	60
7.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게 된 경로 연구 결과	63

8.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	64
IV. 결론 및 정책제언	69
1. 결론 및 요약	69
2. 정책제언	76

## 표 목차

<표 1.1>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등재된 대구 출신 여성독립운동가	3
<표 3.1> 학교·성별 빈도와 퍼센트	13
<표 3.2>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15
<표 3.3>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16
<표 3.4> 대구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17
<표 3.5>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18
<표 3.6>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19
<표 3.7> 대구지역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20
<표 3.8> 대구 여성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21
<표 3.9>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23
<표 3.10>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에 대한 인식정도	24
<표 3.11>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의 7부인에 대한 인식정도	25
<표 3.12>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26
<표 3.13> 조선의열단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정도	28
<표 3.14> 근우회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에 대한 인식정도	29
<표 3.15> 1930·1940년대 한국광복군과 같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정도	30
<표 3.16>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	32
<표 3.17>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최초 3·1운동에 참여한 대구 출신 이선희(이선애)에 대한 인식정도	33
<표 3.18>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최초 3·1운동을 이끈 신명학교 교사 임봉선에 대한 인식정도	35
<표 3.19>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 아산지역 3·1운동을 이끈 대구 출신 한연순에 대한 인식정도	36
<표 3.20>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최초 3·1운동에 참여한 대구 출신 이남숙에 대한 인식정도	38



<표 3.21>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이희경에 대한 인식정도	39
<표 3.22>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김귀임에 대한 인식정도	41
<표 3.23>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남영실에 대한 인식정도	42
<표 3.24>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한태은에 대한 인식정도	44
<표 3.25>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에서 활동한 유인경에 대한 인식정도	45
<표 3.26>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에서 활동한 차보석에 대한 인식정도	47
<표 3.27>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를 조직해 국채보상운동을 한 정경주에 대한 인식정도	48
<표 3.28> 조선의열단 단원으로 활동한 대구 출신 현계옥에 대한 인식정도	50
<표 3.29> 근우회를 창립한 대구 출신 정철성에 대한 인식정도	52
<표 3.30>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	54
<표 3.31>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	55
<표 3.32>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의 필요정도	56
<표 3.33>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발굴의 필요정도	57
<표 3.34> 대구 여성독립운동 유적지 발굴에 대한 필요정도	58
<표 3.35>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탐방 참여의사 정도	60
<표 3.36>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	62
<표 3.37>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 인식정도	63
<표 3.38>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게 된 경로	64
<표 3.39>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	65

## 그림 목차

<그림 4.1>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평균값)	.....	70
<그림 4.2>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 활동의 인식정도(평균값)	.....	71
<그림 4.3>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평균값)	.....	72
<그림 4.4>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인식향상을 위한 활동의 필요정도(평균값)	.....	73
<그림 4.5> 대구독립운동기념관·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평균값)	.....	74
<그림 4.6>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알게 된 경로(퍼센트)	.....	74
<그림 4.7>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퍼센트)	.....	75

# 1. 서론



# 1. 서론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여성독립운동이나 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한 관심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독립운동가 및 관련 유적지를 발굴해 소개하고, 학문적 연구를 통해 일정 정도 연구 성과를 축적하였다.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등재한 대구 출신 여성독립운동가는 <표 1.1>처럼 김귀임·남영실·이남숙·이선희·이희경·한연순 등 6명밖에 되지 않는다. 모두 2,000년대 이후 서훈을 받았다.

<표 1.1>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등재된 대구 출신 여성독립운동가

구분	성명	운동계열	생몰년	훈격(연도)
1	김귀임	학생운동	1911~미상	대통령 표창(21)
2	남영실	국내 항일	1913~미상	대통령 표창(19)
3	이남숙	삼일운동	1903~미상	대통령 표창(19)
4	이선희	삼일운동	1896~1926	대통령 표창(10)
5	이희경	미주방면	1894~1947	건국포장(02)
6	한연순	삼일운동	1898~미상	대통령 표창(19)

여성가족재단이 출간한 『대구 여성독립운동인물사』는 대구 출신과 대구에서 활동한 여성독립운동가 13명을 뽑아 대한제국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활약상을 제시해, 여성이 독립·민족운동의 ‘주인공’임을 알리고, 대구시민의 자긍심과 역사의식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다.

독립·민족운동에 대한 학술적 성과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운동 현창사업에서 기초 자료나 역사교육이나 민족의식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 내용이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우선, ‘여성기록전시콘텐츠’, ‘국립여성사전시관’, ‘내 고향 대구·경북 다시 알기’와 같이 온라인으로 구축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 ‘대구근대역사관’·‘대구 교육박물관’을 만들어 사료·자료를 축적·분류·정리하고 전시를 통해 시민들이 대구 여성

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소개하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연구·현장사업은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발굴된 여성들은 주로 임봉선·이선희처럼 3·1운동에 참여하거나,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등재되어 있거나, 정철성·현계옥 등처럼 일제강점기 전국적 명성을 갖추고 독립운동사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독립운동가 정도이다. 여성독립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직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연구가 걸음마이기 때문에 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한 인식정도 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인식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의 현장 사업과 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일정 정도 성과를 이룩했지만, 인식정도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전문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가 성과물을 만들고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은 이것을 수용하는 프로세스로 현장 사업이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알고 싶고,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고 싶고, 어떻게 가치평가를 내리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이미지(인상)’, ‘인지 여부와 인지도’, ‘접촉 경로와 빈도’ 등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활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 2. 연구개발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해 첫째, 대구의 여성 독립운동 및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둘째, 여성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잘 이해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리더십을 개발한다.

셋째, 대구 중·고등학생에게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대구인으로서 자긍심과 시민의식을 높이고, 대구시민으로서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한다. 넷째, 대구광역시의회·대구광역시 등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조례 제정, 정책 입안 및 시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문화·관광자원 개발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II. 연구내용 및 범위**





## II. 연구내용 및 범위

### 1. 연구내용

대구지역의 중·고등학생의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과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 대구지역의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인식의 정도,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요구 정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독립운동과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은 어떠한가?
- ②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대구지역 독립운동과 독립운동가,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은 어떠한가?
- ③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정도는 어떠한가?
- ④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는 어떠한가?
- ⑤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향상에 대한 요구는 어느 정도인가?
- ⑥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⑦ 위의 문항들은 성별과 상관관계가 있는가?
- ⑧ 위의 문항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간 차이가 있는가?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모집단은 대구지역의 중·고등학생 집단이며,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조사는 2022년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구지역 중학생 310명, 고등학생 310명, 여학생과 남학생을 적절히 안배하여 전체 6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조사 지역은 동구 2곳, 수성구 1곳, 북구 1곳이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자가 자기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수된 설문지 610부다. 무응답 항목이 있는 경우와 응답 오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535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3. 조사도구

이 연구는 구조화된 질문 40문항과 개방형 질문 1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설문 문항은 총 41문항이다. 이중 일반적인 특성은 3문항,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의 정도 7문항,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정도 7문항,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 14문항,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필요성과 요구의 정도 4문항, 그 외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등을 묻는 문항 6문항과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좋은 방안에 대한 개방형 질문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의 정도 7문항, 대구에서 발생한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정도 7문항, 대구에서 활동한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정도 14문항,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필요성과 요구의 정도 4문항, 그 외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등을 묻는 4문항은 4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 4. 분석방법

통계분석에 사용한 통계방법과 통계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은 첫째,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거나 범주별 응답분포를 알아보는 통계분석방법이다. 둘째,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로 연속형 변수들의 전체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해 정리하는 방법으로 자료의 평균, 분산, 최빈값, 비율 등을 통해 자료를 정리하는 것을 말하며 자료의 형식상 수치적 평균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였다. 셋째, 평균 분석으로 4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인식정도는 '전혀 모른다 1점, 거의 모른다 2점, 조금 알고 있다 3점, 매우 알고 있다 4점', 필요정도와 요구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해석상의 유의점으로 열(Row)에 따라 모든 백분율(%)을 산출하며, 결과표의 숫자의 경우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된 값이 제시되기 때문에 백분율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ing error)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서 연구 목적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23/PC를 이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둘째, 구조화된 전체 문항에 대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셋째,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대구에서 발생한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정도,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요구정도 등 총 40문항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성별과 학교별)에 따른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대구에서 발생한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정도,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한 분석을 위한 교차분석을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III. 연구 결과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3.1>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자 535명 중 학교분포는 중학생이 288명으로 53.8%, 고등학생이 247명으로 46.2%를 나타냈다. 성별은 여학생이 309명으로 57.8%, 남학생이 226명으로 42.2%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참여를 하였고,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참여자 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 학교·성별 빈도와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학교	중학생	288	53.8
	고등학생	247	46.2
성별	남학생	226	42.2
	여학생	309	57.8
전체		535	100

#### 2.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에 대한 조사는 4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독립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응답 점수가 평균 3.05로 가장 높았고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해서 1.9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점수별로 보면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 2.58, 대구지역 독립운동 전

반에 대한 자기인식 2.42, 대구지역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 2.23,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 2.10,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 2.08,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자기인식 1.9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은 자기 스스로 여성독립운동보다 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여성독립운동가보다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구독립운동보다 전반적인 독립운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기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독립운동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학교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독립운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학교 교육을 더 많이 받아 독립운동에 대한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묻는 자기인식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2>와 같다. 전반적인 독립운동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74.8%(400명)를 차지해 가장 높고,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이 15.5%(85명)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전반적인 독립운동에 대해 자기 스스로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하여 자기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자기인식정도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전체평균 3.05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3.11로 여학생 3.00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3.11로 중학생 2.97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자기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경우 독립운동에 전반에 대해 스스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4	0.7	-	-
	거의 모른다	48	9.0	-	-
	조금 알고 있다	400	74.8	-	-
	많이 알고 있다	83	15.5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3.11	0.52
	여	309	57.8	3.00	0.51
학교별	중학생	288	53.8	2.97	0.53
	고등학생	247	46.2	3.13	0.49
전체		535	100	3.05	0.52

#### 나.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묻는 자기인식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3>과 같다. 전반적인 여성독립운동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3%(301명)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6.1%(193명)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4%에 불과해 전반적인 독립운동에 비해 자기인식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인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전체평균 2.58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2.56으로 여학생 2.60에 비해 낮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2.66으로 중학생 2.53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이

면서 여학생인 경우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스스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과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정도를 비교해 보면,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전체평균 3.05,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전체평균 2.58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지식이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지식에 비해 자기 스스로 더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과는 달리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유효	전혀 모른다	23	4.3	-	-
	거의 모른다	193	36.1	-	-
	조금 알고 있다	301	56.3	-	-
	많이 알고 있다	18	3.4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56	.670
	여	309	57.8	2.60	.590
학교별	중학생	288	53.8	2.53	.646
	고등학생	247	46.2	2.66	.604
전체		535	100	2.58	.620

#### 다. 대구지역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대구지역 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묻는 자기인식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4>와 같다. 대구지역 독립운동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45.8%(245명)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8.1%(204)를 차지하여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자기인식정도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전체평균 2.42로 나타나 전반적인 독립운동의 전체평균 3.05에 비해 자기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2.49로 여학생 2.35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2.63으로 중학생 2.25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구지역 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경우 대구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스스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대구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유효	전혀 모른다	65	12.1	-	-
	거의 모른다	204	38.1	-	-
	조금 알고 있다	245	45.8	-	-
	많이 알고 있다	21	3.9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49	.778
	여	309	57.8	2.35	.727
학교별	중학생	288	53.8	2.25	.766
	고등학생	247	46.2	2.63	.690
전체		535	100	2.42	.752

### 라.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묻는 자기인식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5>와 같다. 대구지역의 여성독립운동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48.4%(259명)로 가장 높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22.4%(120명)로 나타났다. 자기인식정도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전체평균 2.10으로 나타나 대구지역의 독립운동 전반의 자기인식(전체평균 2.42)보다 낮은 자기인식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2.16으로 여학생 2.04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2.19로 중학생 2.01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경우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스스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120	22.4	-	-
	거의 모른다	259	48.4	-	-
	조금 알고 있다	141	26.4	-	-
	많이 알고 있다	15	2.8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16	.783
	여	309	57.8	2.04	.756
학교별	중학생	288	53.8	2.01	.769
	고등학생	247	46.2	2.19	.759
전체		535	100	2.10	.769

**마.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묻는 자기인식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6>과 같다.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44.7%(239명)로 가장 높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25.2%(135명)를 차지하였다. 자기인식정도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전체평균 2.08로 나타났으며, 대구지역의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전체평균 2.10)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2.18로 여학생 2.00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2.19로 중학생 1.98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경우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스스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135	25.2	-	-
	거의 모른다	239	44.7	-	-
	조금 알고 있다	145	27.1	-	-
	많이 알고 있다	16	3.0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18	.836
	여	309	57.8	2.00	.762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98	.802
	고등학생	247	46.2	2.19	.781
전체		535	100	2.08	.798

**바. 대구지역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대구지역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묻는 자기인식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7>과 같다. 대구지역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46.2%(247명)로 가장 높고,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0.5%(163명),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8.0%(97명)로 나타났다. 자기인식정도에 대해서는 4점 만점에 전체평균 2.23으로 나타나 대구지역의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평균 2.08)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2.33으로 여학생 2.12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2.35로 중학생 2.12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구지역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경우 대구지역 남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스스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대구지역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97	18.1	-	-
	거의 모른다	247	46.2	-	-
	조금 알고 있다	163	30.5	-	-
	많이 알고 있다	28	5.2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33	.822
	여	309	57.8	2.15	.781
학교별	중학생	288	53.8	2.12	.802
	고등학생	247	46.2	2.35	.787
전체		535	100	2.23	.802

### 사. 대구 여성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한 자기인식의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8>과 같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44.3%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0.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구 여성독립운동 유적지 관련한 자기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평균 1.97점으로 자기인식 중 가장 낮았으며, 대구 여성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한 자기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2.02로 여학생 1.93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2.05로 중학생 1.90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자기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경우 대구 여성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해 스스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대구 여성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한 자기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163	30.5	-	-
	거의 모른다	237	44.3	-	-
	조금 알고 있다	124	23.2	-	-
	많이 알고 있다	11	2.1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02	.808
	여	309	57.8	1.93	.770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90	.774
	고등학생	247	46.2	2.05	.795
전체		535	100	1.97	.787

### 3.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의 활동의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지역의 중·고등학생의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의 인식정도에 대한 조사는 4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은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2.33점이었고, 가장 낮은 인식도를 나타낸 것은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문항으로 1.65점으로 나타났다.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활약에 대한 인식도는 2.30으로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 다음으로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내었다. 조선의열단에서 여성의 활약에 대한 인식도는 2.06, 근우회에서 여성의 활약에 대한 인식도는 2.00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3·1운동에서 활동이 가장 높았다. 두 번째는 국채보상운동에서 활동, 조선의열단의 활동, 근우회의 활동,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의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의 인식정도에서 유일하게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에서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여학생이 유일하게 남학생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3.9>와 같다.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41.9%(224명)로 가장 높고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32.3%(173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18.1%(97명)로 나타났다.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2.30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2.32로 남학생은 2.27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2.65로 중학생 1.99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국채보상운동에서 여성의 활동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97	18.1	-	-
	거의 모른다	224	41.9	-	-
	조금 알고 있다	173	32.3	-	-
	많이 알고 있다	41	7.7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27	.822
	여	309	57.8	2.32	.873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99	.774
	고등학생	247	46.2	2.65	.802
전체		535	100	2.30	.852

#### 나.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에 대한 인식정도

전국여성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3.10>과 같다.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4.7%(239명)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9.3%(210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14.0%(75명),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2.1%(11명)에 불과하였다.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전체평균이 1.7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전체평균 2.30)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1.88로 여학생은 1.69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81로 중학생 1.69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전국여성운동의 효시가 된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에 대한 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

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39	44.7	-	-
	거의 모른다	210	39.3	-	-
	조금 알고 있다	75	14.0	-	-
	많이 알고 있다	11	2.1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80	.806
	여	309	57.8	1.69	.749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67	.751
	고등학생	247	46.2	1.81	.797
전체		535	100	1.74	.775

#### 다.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의 7부인에 대한 인식정도

전국 여성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의 7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3.11>과 같다.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의 7부인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8.8%(261명)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9.1%(209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7%(57명),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하였다.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의 7부인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6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에 대한 인식(전체평균 1.74)보다 낮고 국채보상운동의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보다 낮은 점

수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1.70으로 여학생 1.61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69로 중학생 1.61에 비해 약간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의 7부인에 대한 인식정도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전국 여성운동의 효시가 된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의 7부인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의 7부인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61	48.8	-	-
	거의 모른다	209	39.1	-	-
	조금 알고 있다	57	10.7	-	-
	많이 알고 있다	8	1.5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70	.753
	여	309	57.8	1.61	.710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61	.700
	고등학생	247	46.2	1.69	.761
전체		535	100	1.65	.729

#### 라.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3.12>와 같다.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40.0%(214명)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2.1%(167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21.7%(116명),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7.1%였다. 3·1운동에서 대구 여성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2.3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채보상운동(전체평균 2.30),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전체평균 1.74)의 대구 여성 활동 인식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2.36으로 여학생 2.30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2.51로 중학생 2.17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116	21.7	-	-
	거의 모른다	167	31.2	-	-
	조금 알고 있다	214	40.0	-	-
	많이 알고 있다	38	7.1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36	.919
	여	309	57.8	2.30	.874
학교별	중학생	288	53.8	2.17	.873
	고등학생	247	46.2	2.51	.883
전체		535	100	2.33	.893

#### 마. 조선의열단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정도

조선의열단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3.13>과 같다. 조선의열단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8.7%(207명)로 가장 높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29.9%(160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27.1%(145명),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3%였다. 조선의열단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2.0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와 관련된 인식정도보다 높고 국채보상운동과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2.12로 여학생 2.01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2.26으로 중학생 1.88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조선의열단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조선의열단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조선의열단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160	29.9	-	-
	거의 모른다	207	38.7	-	-
	조금 알고 있다	145	27.1	-	-
	많이 알고 있다	23	4.3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12	.901
	여	309	57.8	2.01	.828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88	.809
	고등학생	247	46.2	2.26	.874
전체		535	100	2.06	.860

#### 바. 근우회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에 대한 인식정도

근우회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3.14>와 같다. 근우회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에 대한 인식정도 대해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40.0%(178명)로 가장 높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3.3%(178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6%(110명),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2%였다. 근우회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2.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의열단에서 대구에서 활동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인식정도인 2.06에 비해 낮고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 관련 활동에 대한 인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2.03으로 여학생 1.97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2.34로 중학생 1.70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근우회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근우회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근우회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178	33.3	-	-
	거의 모른다	214	40.0	-	-
	조금 알고 있다	110	20.6	-	-
	많이 알고 있다	33	6.2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03	.909
	여	309	57.8	1.97	.871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70	.767
	고등학생	247	46.2	2.34	.892
전체		535	100	2.00	.887

**사. 1930·1940년대 한국광복군과 같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정도**

1930·1940년대 한국광복군과 같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3.15>와 같다. 1930·1940년대 한국광복군과 같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9.8%(213명)로 가장 높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4.4%(184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20.7%(111명),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0%였다. 한국광복군과 같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96으로 나타나 조선의열단에서 대구에서 활동한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인 2.06과 근우회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 2.00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1.99로 여학생 1.95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2.19로 중학생 1.77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1930·1940년대 한국광복군과 같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였고,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1930·1940년대 한국광복군과 같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184	34.4	-	-
	거의 모른다	213	39.8	-	-
	조금 알고 있다	111	20.7	-	-
	많이 알고 있다	27	5.0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99	.904
	여	309	57.8	1.95	.841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77	.803
	고등학생	247	46.2	2.19	.888
전체		535	100	1.96	.868



## 4.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조사는 4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는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도를 나타냈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가 전체평균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 가운데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인물은 1.83으로 임봉선이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한민국애국부인회 대구지부장으로 활동한 유인경에 대한 인식정도가 가장 낮은 1.59를 나타냈다. 이를 순서대로 보면 임봉선(전체평균 1.83),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 남영실(전체평균 1.66) 이남숙(전체평균 1.64), 정철성(전체평균 1.64), 한연순(전체평균 1.63), 정경주(전체평균 1.63), 이희경(전체평균 1.61), 한태은(전체평균 1.61), 현계옥(전체평균 1.61), 김귀임(전체평균 1.60), 유인경(전체평균 1.59)이다. 특이할 점은 현계옥과 정철성의 인지도는 국가보훈처에 등재된 임봉선·이선희의 인식정도보다는 낮지만,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김귀임·유인경 등보다는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16>과 같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41.7%(223명)로 가장 높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6.8%(197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모른다는 응답이 전체 78%를 차지하였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87점으로 비교적 낮은 인식정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1.92로 여학생은 1.84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2.02로 중학생 1.75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국채보상운동에서 여성

의 활동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197	36.8	-	-
	거의 모른다	223	41.7	-	-
	조금 알고 있다	101	18.9	-	-
	많이 알고 있다	14	2.6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92	.804
	여	309	57.8	1.84	.804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75	.774
	고등학생	247	46.2	2.02	.816
전체		535	100	1.87	.804

나.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3·1운동에 참여한 대구 출신 이선희(이선애)에 대한 인식정도  
 이선희(李善希)[1896. 11. 17~1926. 3. 6.]는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2가에서 태어났다. 이칭은 이선애(李善愛)·이선희(李先希)이다. 1919년 3월 8일 대구의 첫 3·1운동인 서문시장밖시장 만세 시위가 열리자 신명학교를 졸업한 이선희는 신명학교[현 성명중학교·신명고등학교] 후배들과 함께 3·1운동에 참여했다. 당일 이선희는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19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201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대구 출신 이선희(이선애)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17>과 같

다. 이선희(이선애)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44명인 45.6%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4.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 16.3%,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5명 중 41명인 4.1%로, 80%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희(이선애)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79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1.84로 여학생 1.79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85로 중학생 1.74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선희(이선애)에 대한 인식정도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인 1.87에 비해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선희(이선애)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최초 3·1운동에 참여한 대구 출신 이선희(이선애)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44	45.6	-	-
	거의 모른다	182	34.0	-	-
	조금 알고 있다	87	16.3	-	-
	많이 알고 있다	22	4.1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84	.861
	여	309	57.8	1.75	.859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74	.858
	고등학생	247	46.2	1.85	.861
	전체	535	100	1.79	.860

#### 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최초 3·1운동을 이끈 신명학교 교사 임봉선에 대한 인식정도

임봉선(林鳳善)[1897. 10. 10~1923. 2. 10]은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8일 대구 최초 3·1운동인 서문밖시장 만세 시위가 일어나자, 자신의 모교이자 근무 학교였던 신명학교[현 성명중학교·신명고등학교] 학생 50여 명을 이끌고 참여했다.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1919년 4월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임봉선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18>과 같다. 임봉선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36명인 44.1%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2.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 19.6%,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5명 중 21명인 3.9%로 나타났다. 임봉선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83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1.90으로 여학생 1.79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90으로 중학생 1.77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임봉선에 대한 인식정도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인 1.8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선희(이선애) 1.79에 비해서는 높은 인식정도를 보였다. 임봉선의 활동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 이면서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최초 3·1운동을 이끈 신명학교 교사 임봉선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36	44.1	-	-
	거의 모른다	173	32.3	-	-
	조금 알고 있다	105	19.6	-	-
	많이 알고 있다	21	3.9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90	.912
	여	309	57.8	1.79	.849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77	.860
	고등학생	247	46.2	1.90	.892
전체		535	100	1.83	.876

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 아산지역 3·1운동을 이끈 대구 출신 한연순에 대한 인식정도

한연순(韓連順)[1898. 12. 26~?]은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에서 태어났다. 한연순은 대구 신명학교를 졸업하고 영신학교(永信學交)의 교사로 근무하였다. 1919년 3월 31일 충청남도 아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였다. 1919년 5월 9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월형을 언도받았다. 출소 후에는 강경읍의 만동여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다. 1925년에는 대구제4청년회 기관지 『제4청년』 발행 책임위원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남편은 조선청년독립단(朝鮮靑年獨立團)을 조직하여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종근(李琮根)이다. 201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대구 출신 한연순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19>와 같다. 국

가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 아산지역 3·1운동을 이끈 대구 출신 한연순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72명인 50.8%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7.4%(200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응답이 9.3%,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5명 중 13명인 2.4%로 비교적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한연순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63점으로 나타나 임봉선, 이선희(이선애)보다 낮은 인식정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1.73으로 여학생 1.57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68로 중학생 1.59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한연순에 대한 인식정도(전체평균 1.63)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전체평균 1.8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 임봉선(전체평균 1.83)에 비해서도 낮은 인식정도를 보였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인식도를 보인다. 한연순의 활동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 아산지역 3·1운동을 이끈 대구 출신 한연순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72	50.8	-	-
	거의 모른다	200	37.4	-	-
	조금 알고 있다	50	9.3	-	-
	많이 알고 있다	13	2.4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73	.825
	여	309	57.8	1.57	.688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59	.755
	고등학생	247	46.2	1.68	.747
전체		535	100	1.63	.752

#### 마.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최초 3·1운동에 참여한 대구 출신 이남숙에 대한 인식 정도

이남숙(李南淑)[1903. 6. 17~?]은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8일 대구 첫 3·1운동인 서문밖시장 만세 시위가 일어나자, 대구 해성학교(海星學校) 졸업생 이남숙도 시위에 동참하였다.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1919년 4월 18일 대구지방 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2019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 받았다.

대구 출신 이남숙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20>과 같다. 이남숙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74명인 51.2%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6.3%(194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10.3%,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5명 중 12명인 2.2%로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남숙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6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봉선, 이선희(이선애)보다 낮고 한연순(전체평균 1.64)과 비슷한 인식정도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1.67로 여학생 1.61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70으로 중학생 1.58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남숙에 대한 인식정도(전체평균 1.64)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전체평균 1.8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 임봉선(전체평균 1.83)에 비해 인식정도가 낮고 한연순(전체평균 1.63)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남숙의 활동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0>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최초 3·1운동에 참여한 대구 출신 이남숙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74	51.2	-	-
	거의 모른다	194	36.3	-	-
	조금 알고 있다	55	10.3	-	-
	많이 알고 있다	12	2.2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67	.771
	여	309	57.8	1.61	.747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58	.738
	고등학생	247	46.2	1.70	.775
전체		535	100	1.64	.757

**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이희경에 대한 인식정도**

이희경(李喜敬)[1894. 1. 8~1947. 6. 26]은 대구광역시 중구 계산동 2가에서 태어났다. 1919년 3월 21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한부인구제회가 창설되자 회원으로 가입해 독립운동을 후원하였다. 1928년에는 경상도 출신 부인과 함께 영남부인회를 결성하였다. 영남부인회는 1929년 영남부인실업동맹회(嶺南婦人實業同盟會)로 개명하였다. 1930년대 말부터 광복하기까지 대한인국민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수백여 원의 독립운동자금을 제공하였다. 1940년 초 부인구제회의 호놀룰루지방회의 대표로 활동하기도 했다. 2002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대구 출신 이희경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21>과 같다. 이희경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78명인 52.0%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6.8%(197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9.5%,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5명 중 9명인 1.7%로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희경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61점으로 나타나 임봉선, 이선희(이선애)·한연순·이남숙보다 낮은 인식정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1.68로 여학생 1.56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68로 중학생 1.55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희경에 대한 인식정도(전체평균 1.61)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전체평균 1.87)에 비해 낮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 임봉선(전체평균 1.83), 한연순(전체평균 1.63), 이남숙(전체평균 1.64)보다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이희경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 가장 인식도가 낮은 집단은 중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이희경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78	52.0	-	-
	거의 모른다	197	36.8	-	-
	조금 알고 있다	51	9.5	-	-
	많이 알고 있다	9	1.7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68	.781
	여	309	57.8	1.56	.684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55	.702
	고등학생	247	46.2	1.68	.755
전체		535	100	1.61	.728

### 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김귀임에 대한 인식정도

김귀임(金貴任)[1911. 9. 23~?]은 대구광역시 중구 남성로에서 태어났다. 1930년 1월 경성여자상업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 동조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구류 처분을 받았다. 2021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대구 출신 김귀임은 1929년 광주 지역의 학생이 주도하여 일으킨 항일독립만세운동인 광주학생운동의 동조 시위에서 활약한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이다. 김귀임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22>와 같다. 김귀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83명인 52.9%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5.9%(192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9.2%,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5명 중 11명인 2.1%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김귀임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60점으로, 임봉선·이선희(이선애)·한연순·이남숙·이희경보다 낮은 인식정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1.70으로 여학생 1.54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68로 중학생 1.54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김귀임에 대한 인식정도(전체평균 1.60)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전체평균 1.87)에 비해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임봉선(전체평균 1.83)·한연순(전체평균 1.63)·이남숙(전체평균 1.64)·이희경(전체평균 1.61)보다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김귀임의 활동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 가장 인식도가 낮은 집단은 중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김귀임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83	52.9	-	-
	거의 모른다	192	35.9	-	-
	조금 알고 있다	49	9.2	-	-
	많이 알고 있다	11	2.1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70	.822
	여	309	57.8	1.54	.667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54	.708
	고등학생	247	46.2	1.68	.769
전체		535	100	1.60	.740

#### 아.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남영실에 대한 인식정도

남영실(南英實)[1913. 1. 16~]은 대구광역시 중구 화전동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이다. 남영실은 서울에서 사환으로 일하던 중 반제동맹에 가담해 활동했으나, 1933년 2월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201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대구 출신 남영실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23>과 같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남영실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73명인 51.0%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4.0%(182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12.5%,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5명 중 13명인 2.4%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남영실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66점으로, 임봉선, 이선희(이선애)보다 낮고 한연순·이남숙·이희경·김귀임보다 높은 인식정도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평균 1.70으로 여학생 1.63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75로 중학생 1.59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남영실에 대한 인식정도(전체평균 1.66)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전체평균 1.87)에 비해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임봉선(전체평균 1.83)보다 낮은 인식도를 나타내고 있고, 한연순(전체평균 1.63)·이남숙(전체평균 1.64)·이희경(전체평균 1.61)보다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남영실의 활동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 가장 인식도가 낮은 집단은 중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남영실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73	51.0	-	-
	거의 모른다	182	34.0	-	-
	조금 알고 있다	67	12.5	-	-
	많이 알고 있다	13	2.4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70	.809
	여	309	57.8	1.63	.772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59	.777
	고등학생	247	46.2	1.75	.794
전체		535	100	1.66	.788

#### 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한태은에 대한 인식정도

한태은(韓泰恩)[1920. 9. 23~2006. 2. 27]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에서 태어났다. 1941년 5월 중국 충칭(重慶)에서 조선의용대 부녀복무단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1942년 11월 한국광복군 개편 이후, 충칭 주둔 광복군 제1지대 대원으로 활동하였다. 2020년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대구 출신 한태은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24>와 같다. 한태은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86명인 53.5%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4.4%(184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9.7%,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5명 중 13명인 2.4%로 나타났다. 한태은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61점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은 평균 1.56, 남학생은 1.68로 남학생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69로 중학생 1.55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한태은에 대한 인식정도(전체평균 1.61)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전체평균 1.87)에 비해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임봉선(전체평균 1.83)·한연순(전체평균 1.63)·이남숙(전체평균 1.64)·남영실(전체평균 1.66)보다 낮고, 김귀임(전체평균 1.60)보다 약간 높고, 이희경(전체평균 1.61)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성별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한태은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 가장 인식도가 낮은 집단은 중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출신 한태은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86	53.5	-	-
	거의 모른다	184	34.4	-	-
	조금 알고 있다	52	9.7	-	-
	많이 알고 있다	13	2.4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68	.819
	여	309	57.8	1.56	.712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55	.750
	고등학생	247	46.2	1.69	.768
전체		535	100	1.61	.761

### 차.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에서 활동한 유인경에 대한 인식정도

유인경(兪仁卿)[1896. 10. 20~1944. 3. 2]은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태어났다. 1919년 대한민국의립회(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 가입하여 항일독립운동을 폈다. 대한민국의립회는 기독교회·학교·병원 등을 이용해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고, 회원들의 회비와 수예품 판매비를 모아 대한민국의립정부에 독립자금을 지원하였다. 유인경은 거창·밀양·통영을 통괄하는 대한민국의립회 대구지부장으로 선임되어 조직을 확대하는 데 힘썼다. 대한민국청년외교단과 함께 대한민국의립정부 국내 연통부의 역할을 대행하였고, 약 6천 원 독립자금을 대한민국의립정부에 송금하였다. 1919년 11월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어 1920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63년 대통령표창,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유인경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25>와 같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에서 활동한 유인경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91명인 54.4%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3.6%(180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10.1%,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나타났다. 유인경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59점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은 평균 1.55, 남학생은 1.65로 남학생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68로 중학생 1.52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유인경에 대한 인식정도(전체평균 1.59)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전체평균 1.87)에 비해 낮은 인식정도를 보였다. 또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식정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유인경에 대해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 중 가장 낮은 인식정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 가장 인식도가 낮은 집단은 중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에서 활동한 유인경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91	54.4	-	-
	거의 모른다	180	33.6	-	-
	조금 알고 있다	54	10.1	-	-
	많이 알고 있다	10	1.9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65	.804
	여	309	57.8	1.55	.699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52	.703
	고등학생	247	46.2	1.68	.785
전체		535	100	1.59	.746

### 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신명학교 교사 차보석에 대한 인식정도

차보석(車寶錫)[1892?~1932. 3. 21]은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났다. 차보석은 1907년에서 1915년까지 신명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1921년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재상해 유일학생회의 회원으로 활동했다. 1925년 대한여자애국단 샌프란시스코지부 단장을 역임했다. 1925년부터 1928년까지 샌프란시스코 국어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1926년부터 1928년까지 대한여자애국단의 총단장을 역임하였다. 1931년 대한인국민회에 입회하여 1932년 3.1절 기념식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차보석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25>와 같다. 차보석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85명인 53.3%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2.5%(174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11.8%,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5명 중 13명인 2.4%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차보석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63점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은 평균 1.62, 남학생은 1.66으로 남학생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74로 중학생 1.55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차보석에 대한 인식정도(전체평균 1.63)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전체평균 1.87)에 비해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임봉선(전체평균 1.83)·한연순(전체평균 1.63)·이남숙(전체평균 1.64)·남영실(전체평균 1.66)보다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한편, 김귀임(전체평균 1.60)·이희경(전체평균 1.61)·한태은(전체평균 1.61)·유인경(전체평균 1.59)보다 높은 인식정도를 보였다.

대한여자애국단 샌프란시스코지부단장 등으로 활동하고 대구신명학교 교사로 재직한 여성독립운동가인 차보석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 가장 인식도가 낮은 집단은 중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에서 활동한 차보석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85	53.3	-	-
	거의 모른다	174	32.5	-	-
	조금 알고 있다	63	11.8	-	-
	많이 알고 있다	13	2.4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66	.797
	여	309	57.8	1.62	.775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55	.745
	고등학생	247	46.2	1.74	.816
전체		535	100	1.63	.784

**타.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를 조직해 국채보상운동을 한 정경주에 대한 인식정도**

정경주(鄭瓊周)[1866~1945]는 1907년 2월 23일 대구광역시 중구 남일동에서 머느리 정말경[서학균의 아내]·최실경[서석균의 아내]·이덕수[서덕균의 아내]·서채봉[정운갑의 어머니]·김달준[정운화의 아내]·김수원의 아내 배씨와 함께 패물폐지부인회를 결성하였다. 남일동 패물폐지부인회는 은장도와 은가락지 등 부인들이 가지고 있던 패물들을 기부하여 국채를 갚고 경제 주권을 지키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는 근대시기 최초 여성단체로 평가받는다.

정경주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27>과 같다. 정경주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83명인 52.9%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3.8%(181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11.0%,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5명 중 12명인 2.2%로 나타났다. 정경주에 대한 인

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63점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은 평균 1.61, 남학생은 1.65로 남학생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73으로 중학생 1.54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정경주에 대한 인식정도(전체평균 1.63)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전체평균 1.87)에 비해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대구 여성 독립운동가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임봉선(전체평균 1.83)·이남숙(전체평균 1.64)·남영실(전체평균 1.66)보다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한편, 김귀임(전체평균 1.60)·이희경(전체평균 1.61)·한태은(전체평균 1.61)·유인경(전체평균 1.59)보다 높고 한연순(전체평균 1.63)과는 비슷한 인식정도를 보였다.

정경주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 가장 인식도가 낮은 집단은 중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를 조직해 국채보상운동을 한 정경주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83	52.9	-	-
	거의 모른다	181	33.8	-	-
	조금 알고 있다	59	11.0	-	-
	많이 알고 있다	12	2.2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65	.809
	여	309	57.8	1.61	.738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54	.727
	고등학생	247	46.2	1.73	.805
전체		535	100	1.63	.768

#### 파. 조선의열단 단원으로 활동한 대구 출신 현계옥에 대한 인식정도

현계옥(玄桂玉)[1897~?]은 경상남도 밀양시에서 태어났다. 1913년 17살 때 대구기생조합 소속 기생이 되었고, 이때 현정건과 인연을 맺었다. 1915년 서울 한남권번으로 소속을 옮겼다. 1919년 서울에서 현정건을 만나 만주로 이주했고, 11월 조선의열단에 가입해 활동했다. 1923년 황오경부폭탄사건에 관여했다. 1928년 3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던 현정건이 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경찰에 잡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고문과 옥살이로 1932년 12월 30일 순국하였다. 연인 현정건이 사망하자 현계옥은 행방을 감추었다. 시베리아로 망명했다는 설과 모스크바에 가서 공산대학을 다녔다는 설이 있다.

현계옥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28>과 같다. 현계옥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85명인 53.3%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4.8%(186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9.50%, 많이 알고 있다는 535명 중 13명인 2.4%로 나타났다. 현계옥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61점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은 평균 1.58, 남학생은 1.66으로 남학생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68로 중학생 1.56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있는 않지만, 독립운동단체 조선의열단의 단원으로 활동한 대구 출신의 여성독립운동가인 현계옥에 대한 인식정도(전체평균 1.61)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전체평균 1.87)에 비해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임봉선(전체평균 1.83)·이남숙(전체평균 1.64)·남영실(전체평균 1.66)·한연순(전체평균 1.63) 보다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한편, 김귀임(전체평균 1.60)·유인경(전체평균 1.59)보다 높고 이희경(전체평균 1.61)·한태은(전체평균 1.61)과 비슷한 인식정도를 보였다. 특히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지 않은 현계옥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김귀임·한태은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여,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있는 않지만, 독립운동단체 조선의열단의 단원으로 활동한 대구 출신의 여성독립운동가인 현계옥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남학생, 가장 인식도가 낮은 집단은 중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조선의열단 단원으로 활동한 대구 출신 현계옥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85	53.3	-	-
	거의 모른다	186	34.8	-	-
	조금 알고 있다	51	9.5	-	-
	많이 알고 있다	13	2.4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66	.797
	여	309	57.8	1.58	.729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56	.749
	고등학생	247	46.2	1.68	.765
전체		535	100	1.61	.758

#### 하. 근우회를 창립한 대구 출신 정칠성에 대한 인식정도

정칠성(丁七星)[1897~1958]은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다. 1907년 10살 나이 때부터 기생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1910년대 중반 서울 대정권변으로 소속을 옮겼다. 1919년 3·1 운동에 참여했다. 1922년 일본 도쿄(東京)에서 영어강습소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1923년 대구여자청년회를 조직하고 물산장려운동에 참여했다. 1924년 조선여성동우회를 창립하고 집행위원으로 활약했다. 또한, 인천노동총동맹 상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 대구에서 사상단체 사합동맹을 결성했고, 일본에 다시 유학을 가서 여성사상단체 삼월회의 간부로 활동했다. 1926년 귀국 후 조선여성동우회에서 활동했다. 1927년 근우회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고, 조직선전부를 담당했다. 1929년 근우회 기관지 『근우』를 창간 및 발간하는 일을 맡았다. 또한, 근우회 중앙집행위원장에 선임되었다. 1947년 조선부녀총동맹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정철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29>와 같다. 정철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35명 중 279명인 52.1%로 가장 높고 거의 모른다는 응답이 34.2%(183명)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조금 알고 있다는 11.0%, 많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35명 중 14명인 2.6%로 나타났다. 정철성에 대한 인식정도의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1.64점으로 나타났다. 여학생과 남학생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은 평균 1.59, 남학생은 1.71로 남학생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1.74로 중학생 1.56에 비해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있는 않지만 항일여성독립운동단체를 창립한 대구 출신의 여성독립운동가인 정철성에 대한 인식정도(전체평균 1.64)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전체평균 1.87)에 비해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임봉선(전체평균 1.83)·남영실(전체평균 1.66)보다 낮은 인식도를 보였다. 한편, 한연순(전체평균 1.63)·김귀임(전체평균 1.60)·유인경(전체평균 1.59)·이희경(전체평균 1.61)·한태은(전체평균 1.61)보다 높고, 이남숙(전체평균 1.64)과 비슷한 인식정도를 보였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김귀임·유인경·이희경·한연순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여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있는 않지만, 여성항일독립운동단체인 근우회를 창립한 대구 출신의 여성독립운동가인 정철성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 이면서 남학생, 가장 인식도가 낮은 집단은 중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9〉 근우회를 창립한 대구 출신 정철성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모른다	279	52.1	-	-
	거의 모른다	183	34.2	-	-
	조금 알고 있다	59	11.0	-	-
	많이 알고 있다	14	2.6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1.71	.835
	여	309	57.8	1.59	.736
학교별	중학생	288	53.8	1.56	.772
	고등학생	247	46.2	1.74	.779
전체		535	100	1.64	.780

## 5.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인식향상을 위한 활동의 필요정도에 대한 연

### 구 결과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인식향상을 위한 활동의 필요정도에 대한 조사는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 대구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해 교육·발굴·탐방에 관한 필요정도를 조사하였다.

교육과 발굴 모두 비교적 필요성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보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이 전체평균 3.15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대구 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이 전체평균 3.14이며,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활동과 인물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

다는 응답이 전체평균 3.12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유적지 발굴에 대한 필요정도는 전체평균 3.11, 유적지가 있다면 탐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평균 2.77로 다른 문항에 비교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성별과 학교별로 필요정도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활동과 인물의 교육과 발굴에 대해 더 높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더욱 교육과 발굴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30>과 같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정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2.1%(279명)로 가장 높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3.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필요하다는 응답이 85%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에 대한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3.14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3.31로 남학생 2.89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여학생이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평균 3.22로 중학생 3.06으로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26	4.9	-	-
	그렇지 않다	53	9.9	-	-
	그렇다	279	52.1	-	-
	매우 그렇다	177	33.1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89	.828
	여	309	57.8	3.31	.690
학교별	중학생	288	53.8	3.06	.792
	고등학생	247	46.2	3.22	.756
전체		535	100	3.14	.779

#### 나.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31>과 같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정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9%(267명)로 가장 높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5.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필요하다는 응답이 85%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에 대한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3.15점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 평균 3.1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3.34로 남학생 2.89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에 대해 여학생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별로는 중학생 3.08, 고등학생 3.23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29	5.4	-	-
	그렇지 않다	51	9.5	-	-
	그렇다	267	49.9	-	-
	매우 그렇다	188	35.1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89	.860
	여	309	57.8	3.34	.700
학교별	중학생	288	53.8	3.08	.820
	고등학생	247	46.2	3.23	.774
전체		535	100	3.15	.802

#### 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의 필요정도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의 필요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32>와 같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의 필요정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3.1%(284명)로 가장 높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1.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필요하다는 응답이 84.9%를 차지하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에 대한 필요정도에 대한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3.12점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 평균 3.14,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평균 3.15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3.28로 남학생 2.91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에 대해 여학생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별로는 중학생 3.06, 고등학생 3.19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에 대한 필요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의 필요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25	4.7	-	-
	그렇지 않다	56	10.5	-	-
	그렇다	284	53.1	-	-
	매우 그렇다	170	31.8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91	.803
	여	309	57.8	3.28	.711
학교별	중학생	288	53.8	3.06	.765
	고등학생	247	46.2	3.19	.776
전체		535	100	3.12	.772

### 라.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발굴의 필요정도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발굴이 필요한 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33>과 같다. 대구 여성독립운동 발굴의 필요정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0%(289명)로 가장 높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1.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필요하다는 응답이 85.0%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발굴에 대한 필요정도에 대한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3.12점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의 필요성과 같은 정도로 나타났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의 필요정도 평균 3.14,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평균 3.15 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3.29로 남학생 2.89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에 대해 여학생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별로는 중학생 3.06, 고등학생 3.19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발굴에 대한 필요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발굴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발굴의 필요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25	4.7	-	-
	그렇지 않다	53	9.9	-	-
	그렇다	289	54.0	-	-
	매우 그렇다	168	31.4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89	.793
	여	309	57.8	3.29	.701
학교별	중학생	288	53.8	3.06	.753
	고등학생	247	46.2	3.19	.776
전체		535	100	3.12	.766

### 마.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유적지 발굴의 필요정도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유적지 발굴의 필요한 정도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34>와 같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유적지 발굴의 필요정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4%(339명)로 가장 높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5.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필요하다는 응답이 88.4%를 차지하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유적지 발굴에 대한 필요정도에 대한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3.11점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발굴 필요정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3.21로 남학생 2.97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대구 여성독립운동 유적지 발굴에 대해 여학생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별로는 중학생 3.07, 고등학생 3.15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유적지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 여성독립운동 유적지의 발굴에 대한 필요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발굴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대구 여성독립운동 유적지 발굴에 대한 필요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7	3.2	-	-
	그렇지 않다	43	8.0	-	-
	그렇다	339	63.4	-	-
	매우 그렇다	136	25.4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97	.727
	여	309	57.8	3.21	.608
학교별	중학생	288	53.8	3.07	.666
	고등학생	247	46.2	3.15	.675
전체		535	100	3.11	.671

#### 바.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탐방 참여의사 정도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유적지가 있다면 탐방에 참여할 의사가 어느 정도 인지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35>와 같다.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탐방 참여에 대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5%(270명)로 가장 높고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24.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 매우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17.2%, 전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7.5%를 차지하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유적지 탐방에 대한 의향에 대한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2.77점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유적지의 발굴 필요정도인 3.11보다 낮게 나타나 유적지 발굴에 대한 필요성에 비해 낮은 탐방에 대한 의사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2.92로 남학생 2.58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유적지에 대해 여학생이 더 많이 탐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 별로는 중학생 2.68, 고등학생 2.88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대구 여성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할 의사가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 여성독립운동 유적지 관련 탐방에 대한 의사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 유적지 관련 탐방에 대해 가장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5〉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탐방 참여의사 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40	7.5	-	-
	그렇지 않다	133	24.9	-	-
	그렇다	270	50.5	-	-
	매우 그렇다	92	17.2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58	.882
	여	309	57.8	2.92	.738
학교별	중학생	288	53.8	2.68	.864
	고등학생	247	46.2	2.88	.745
전체		535	100	2.77	.818

## 6.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지역의 중·고등학생의 대구독립운동기념관과 대구여성독립기념관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4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4점 만점에 3.17로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구독립운동기념관보다 낮은 인식정도를 나타내었으나, 80% 이상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고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독립운동기념관의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여학생 3.18, 남학생이 2.77) 대구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정도(여학생 3.25, 남학생 3.06) 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학생 모두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보다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다. 그렇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가.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 인식정도

대구에 독립운동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36>과 같다. 대구독립운동기념관 필요성 인식정도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6%(319명)로 가장 높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9.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며,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90%를 차지하였다. 대구독립운동기념관 필요성 인식정도에 대한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3.17점으로, 본조사의 ‘대구 여성 독립운동 관련 인식향상을 위한 활동의 필요정도’ 중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3.25로 남학생 3.06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대구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 여학생이 더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별로는 중학생 3.10, 고등학생 3.25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의 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2	2.2	-	-
	그렇지 않다	45	8.4	-	-
	그렇다	319	59.6	-	-
	매우 그렇다	159	29.7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3.06	.700
	여	309	57.8	3.25	.629
학교별	중학생	288	53.8	3.10	.684
	고등학생	247	46.2	3.25	.637
전체		535	100	3.17	.666

#### 나.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 인식정도

대구에 여성독립운동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의 응답 결과는 <표 3.37>과 같다. 대구에 여성독립운동기념관 필요성 인식정도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5%(297명)로 가장 높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25.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 필요성 인식정도에 대한 전체평균은 4점 만점에 3.00점으로 대구독립운동기념관(전체평균 3.17) 필요성 인식정도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평균 3.18로 남학생 2.77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여,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 여학생이 더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별로는 중학생 2.94, 고등학생 3.07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의 인식정도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구에 여성독립운동기념관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은 고등학생이면서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 인식정도

구분		빈도	퍼센트	평균	표준편차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31	5.8	-	-
	그렇지 않다	72	13.5	-	-
	그렇다	297	55.5	-	-
	매우 그렇다	135	25.2	-	-
	전체	535	100	-	-
성별	남	226	42.2	2.77	.834
	여	309	57.8	3.18	.704
학교별	중학생	288	53.8	2.94	.807
	고등학생	247	46.2	3.07	.759
전체		535	100	3.00	.787

## 7.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게 된 경로 연구 결과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는 <표 3.38>과 같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게 된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은 교과서가 35%(187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두 번째는 유튜브 30.3%(162명), TV 13.6%, 기타 12.3%, 교과서 이외 책 8.8% 순이었다. 대구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인

식에 도움을 준 경로가 학교의 교과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8>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게 된 경로

구분	빈도	퍼센트
유튜브	162	30.3
TV	73	13.6
교과서	187	35.0
책[교과서 이외]	47	8.8
기타	66	12.3
전체	535	100

## 8.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3.39>와 같다. 유튜브 41.3%(221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과서 27.1%(145명)를 차지하였다. TV 14.8%, 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 그 뒤를 이어 10.3%를 차지하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는데 유튜브와 교과서 등을 이용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9〉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

구분	빈도	퍼센트
유튜브	221	41.3
TV	79	14.8
교과서	145	27.1
책[교과서 이외]	17	3.2
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55	10.3
기타	18	3.4
전체	535	100



## **IV. 결론 및 정책제언**



## IV. 결론 및 정책제언

### 1. 결론 및 요약

본 연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대구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의 중요성과 당위성, 활용 방안, 인식향상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2022년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유효 설문지 535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고, 4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전체 조사대상자 535명 중 학교분포는 중학생이 288명, 고등학생이 247명 성별 분포는 여학생 309명, 남학생 226명이다.

#### 가.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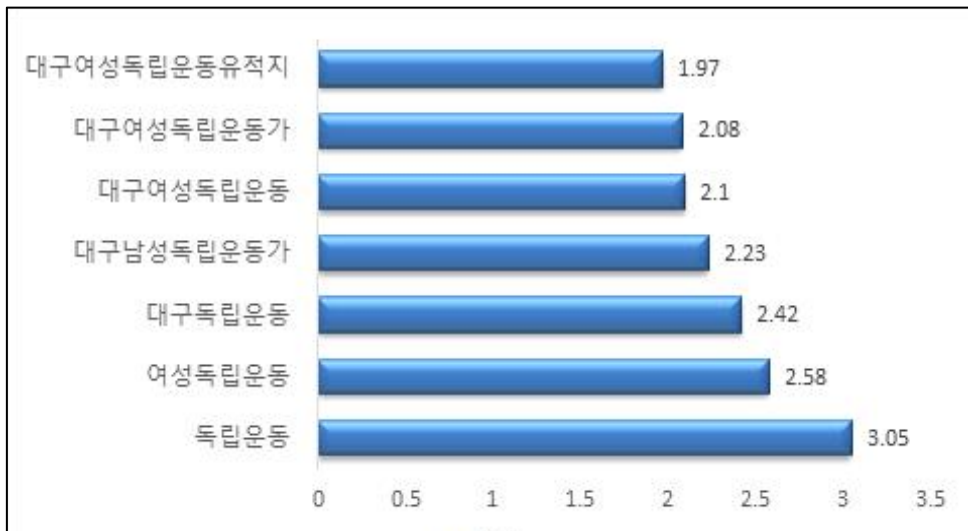
가장 높은 자기인식을 나타낸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으로 평균 3.05로 나타났고,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자기인식이 1.9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를 점수별로 보면 독립운동에 대한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 3.05,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 2.58, 대구지역 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 2.42, 대구지역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 2.23,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 2.10,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 2.08,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자기인식 1.97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은 자기 스스로 여성독립운동보다 독립운동 전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여성독립운동가와 비교해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대구독립운동보다 전반적인 독립운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별로는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자기인식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남학생의 자기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독립운동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별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독립운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교육을 더 많이 경험한 고등학생이 독립운동에 대한 지식을 접할 기회가 많은 것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기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를 평균점으로 비교해 본 결과, 실제 자신이 알고 있는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의 인식정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자신의 지식에 비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자기인식은 2.08이지만, 대구지역 개별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는 1.87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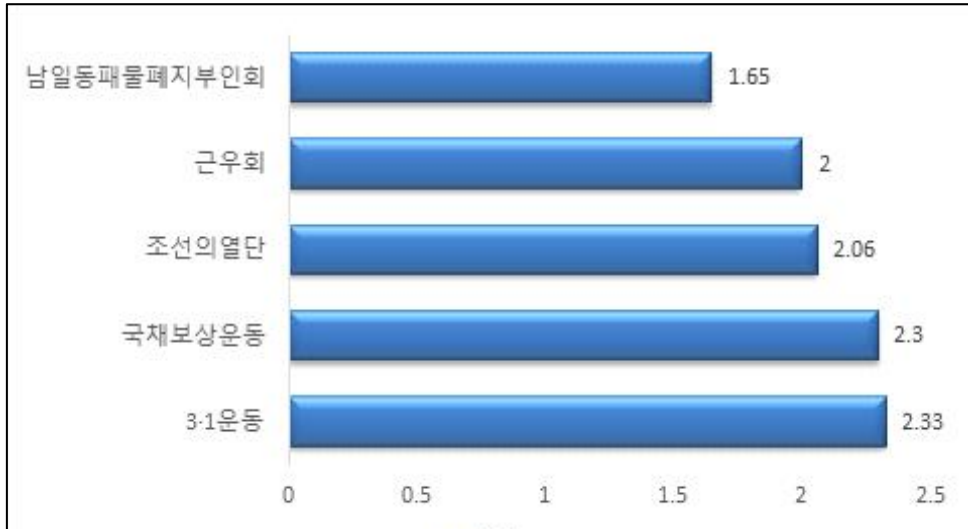
**<그림 4.1>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평균값)**

#### 나.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의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의 인식정도가 가장 높은 것은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으로 2.33점이었고 가장 낮은 인식도를 나타낸 것은 남일동패물폐지부 인회에 대한 인식도 1.65점을 나타내었다.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약에 대한 인식도는 2.30으로, 3·1운동에서 대구 여성의 활동 다음으로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내었다. 조선의열단에서 여성의 활약에 대한 인식도는 2.06, 근우회에서 여성의 활약에 대한 인식도는 2.00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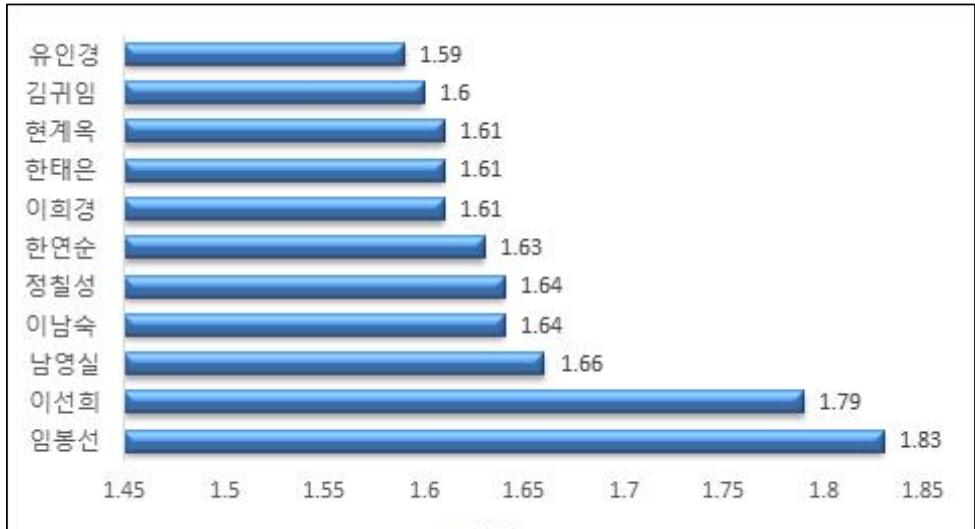
따라서 3·1운동 등과 같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면서, 가장 널리 알려진 독립운동에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의 인식정도에서 유일하게 국채보상운동은 근소한 차이지만, 여학생이 유일하게 남학생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 활동의 인식정도(평균값)**

#### 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는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인식도를 나타냈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정도가 전체평균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가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나타낸 인물은 임봉선(1.83)이며, 유인경(1.59)이 가장 낮았다. 이를 순서대로 보면, 임봉선(전체평균 1.83), 이선희(이선애)(전체평균 1.79), 남영실(전체평균 1.66), 이남숙(전체평균 1.64), 정철성(전체평균 1.64), 한연순(전체평균 1.63), 정경주(전체평균 1.63), 이희경(전체평균 1.61), 한태은(전체평균 1.61), 현계옥(전체평균 1.61), 김귀임(전체평균 1.60), 유인경(전체평균 1.59)이다. 현계옥과 정철성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김귀임·유인경 등보다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3>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정도(평균값)**

**라.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인식향상을 위한 활동의 필요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와 대구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해 교육과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와 활동들을 발굴하는 것에 대한 필요정도를 조사하였다. 교육과 발굴 모두 비교적 필요성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보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이 전체평균 3.15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은 대구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이 전체평균 3.14,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활동과 인물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평균 3.12로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유적지 발굴에 대한 필요정도는 전체평균 3.11, 유적지가 있다면 탐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평균 2.77로 다른 문항에 비교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성별과 학교별로 필요정도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활동과 인물의 교육과 발굴에 대해 더 높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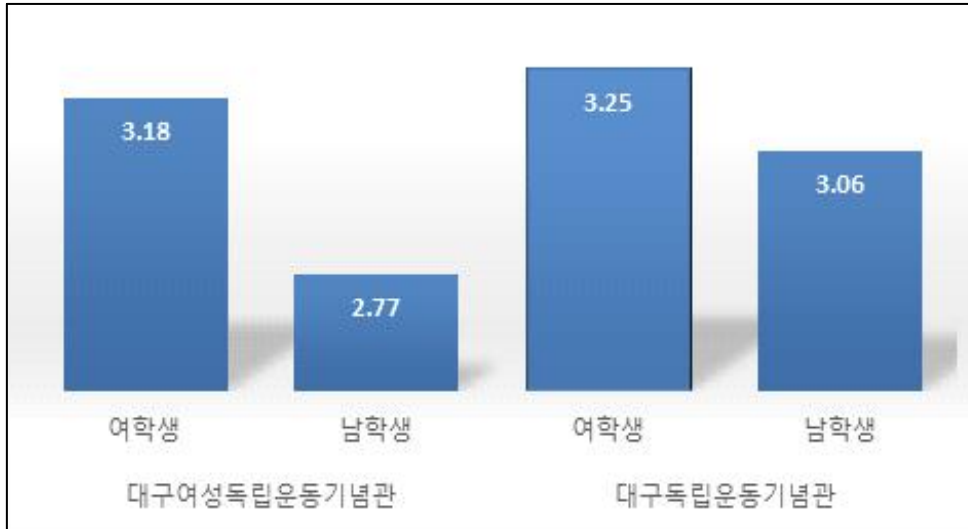


**<그림 4.4> 대구 여성독립운동 관련 인식향상을 위한 활동의 필요정도(평균값)**

#### 마. 대구독립운동기념관·대구여성독립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지역의 중·고등학생의 대구독립운동기념관과 대구여성독립기념관에 대한 필요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4점 만점에 3.17로 매우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구독립운동기념관보다 낮은 인식정도를 나타내었으나 80% 이상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 높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독립운동기념관의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가(여학생 3.18, 남학생이 2.77) 대구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정도(여학생 3.25, 남학생 3.06)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대구독립운동기념관과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에 대해 남학생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정도의 차이가 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의 인식에서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그림 4.5> 대구독립운동기념관·대구여성독립운동기념관의 필요성(평균값)**

**바.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알게 된 경로 연구 결과**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알게 된 경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교과서로 35%(187명)를 나타내었고 두 번째는 유튜브 30.3%(162명), TV는 13.6%, 기타가 12.3%, 교과서 외 책은 8.8% 순이었다. 대구 여성독립운동 전반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준 경로가 학교의 교과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6>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알게 된 경로(퍼센트)**

### 사.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것은 유튜브 41.3%, 다음으로 교과서 27.1% 차지하였다. TV 14.8%, 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 그 뒤를 이어 10.3%를 차지하였다. 대구 여성독립운동과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는데 유튜브와 교과서 등을 이용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 대구 여성독립운동을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퍼센트)

또한, 학생들은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널리 알리는데 좋은 방안이나 의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였다. 첫째, 유튜브·TV와 같은 영상 매체의 활용이다. 압도적으로 여러 연령대가 모두 사용하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만들어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뿐 아니라 유명 유튜버를 섭외해 영상을 제작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단순 제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방영하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둘째, 교과서와 학교 프로그램 활용이다. 교과서에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내용을 싣고, 학교 수업 시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학교에서는 교과서 수업뿐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학교 행사·특별교육·영상교육 등을 활용해 학생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 복도에 독립운동

가의 사진·이름·업적 등을 적어서 전시하면 많은 학생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셋째, SNS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MZ세대에 익숙한 SNS가 여성독립운동가를 알리는 데 더 효과적이라 보고 있었다. 마지막, 소수이지만, 거대 동상 건립, 영화 제작, 여성독립운동가의 마스크트·캐릭터 만들기, 유적지 탐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들이 유튜브·TV와 같은 영상매체 다음으로 교과서와 학교 프로그램 활용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즉 정책 입안자나 개발자는 연령별·계층별·직업별로 다양한 수요를 파악한 후 정책을 시행해야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본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 2. 정책제언

### 가. 독립운동의 ‘성지’ 만들기

대구는 대한제국기 ‘경제구국운동’이라 불리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대한광복회·조선의열단 등의 활동 근거지이며,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자료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123명을 배출하였다.<sup>1)</sup> 또한, 대구형무소 순국자 가운데 정부로부터 서훈받은 독립운동가가 176명으로 서울 서대문형무소보다 많다. 대구를 독립운동의 ‘성지’로 만들자는 공감대도 역시 형성되고 있다. 대구광역시 역시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현창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네이버 공식 블로그인 컬러풀 대구에 「대구를 빛낸 여성 독립운동가」를 만들어 정철성·이선희 등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 ‘3·1운동 유공자벽’을 조성해 여성독립운동가 9명을 알렸다. 또한,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에서 가장 많은 여성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성명중학교·신명고등학교 벽에 신명학교 출신 여성독립운동가 부조를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대구 여성독립운동인물사』를 출간하였다.

대구광역시는 책자 발간·독립운동 유적지·독립운동가 기념비·유튜브 및 SNS 활용 등 다양한 형태로 독립운동 현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채보

1)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대구출생독립유공자」 ([https://815gb.or.kr/boardview/character\\_search\\_gb/13/re14/%EB%8C%80%EA%B5%AC](https://815gb.or.kr/boardview/character_search_gb/13/re14/%EB%8C%80%EA%B5%AC)), 2022년 6월 1일 검색

상운동, 대구3·1운동 등 위주로 현창사업이 치우쳐져 있어, 대한제국기부터 일제강점기 전반에 걸쳐 일어난 대구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여러 종류의 독립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제 대구광역시는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조선의열단·혜성단·태극단·주먹단 등 독립운동단체, 대구고등보통학교(현 경북중·고등학교)·계성학교(현 계성중·고등학교)·신명학교(현 성명중·신명고등학교)·대구상업학교(현 상원고등학교)·대구사범학교의 학생운동 등에 대한 현창사업을 통해 대구지역 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대구인으로서 자긍심과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

#### 나. 근대문화유산의 ‘메카’ 조성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문화유산 상징화를 통한 대구 문화정체성 확립’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근대문화유산이 관광정책과 결합해 가장 성공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대구광역시이다.

첫째, 산업과 결합된 탐방 문화 조성이다.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는 ‘대구여성탐방로 반지길’을 개발해 성공적으로 안착을 시켰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20년 상호존중하는 좋은 경영대상’에서 여성과 함께하는 좋은 정책 부문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대구여성탐방로 반지길’이 만들어짐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대표적인 산업 기반인 ‘금은보석산업’이 달라지고 있다. ‘대구여성탐방로 반지길’과 연계한 문화관광상품의 일종으로 대구 반지 공방이 만들어지고 대구 반지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새로운 관광 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둘째, 여성독립운동 박물관·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여성독립운동가 기념관이 건립 혹은 계획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2020년 충북 여성 독립운동가 전시관이 전국 최초로 건립되었다. 온라인에서는 여성기록전시 콘텐츠,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소개하고 있다. 근대시기 대구에는 신명학교·대구여자보통학교(현 경북여자중·고등학교) 등 여성중등교육기관 소속 여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발굴·연구·현창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대구 역시 광역시 단위에서 ‘최초’로 온·오프라인으로 여성독립운동 박물관·기념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대구독립운동기념관 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섹션을 구축해야 한다. 대구에서는 민·관이 2025년을 목표로 대구독립운동기념관을 조성하고자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는 독립운동의 ‘성지’인 대구에서는 대구독립운동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기념관의 전시 공간이 설계될 때부터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섹션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여성독립운동 유적지를 발굴하고 탐방로를 만들어 탐방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여성독립운동가 개별 유적지, 대구3·1운동 여성독립운동 유적지, 신명학교 출신 여성독립운동가 유적지 등 다양하게 개발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다. 청소년 및 시민 교육

현행 청소년 교육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는 바로 민주 시민 육성이다.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 시민은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결국, 민주시민은 자기 주인성과 주체성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을 갖춰야 한다. 이때 필요한 교육이 바로 독립운동이다. 특히, 여성독립운동가 가운데 근대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많았고, 주로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사회변혁의 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청소년 교육 및 시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활용 방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여성독립운동 관련 비교과 과목을 개발하고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 설문조사에 응한 중·고등학생 가운데 교과서를 제작하거나 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루 7시간 이상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 입장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법이다. 따라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출간한



초등교육용 『참 좋은 우리 대구』, 중학생용 『내고장 대구·경북 다시 보기』처럼 『대구 여성독립운동가』라는 제목으로 비교과 교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주인성’과 ‘주체성’을 길러내어야 한다.

둘째, 여성독립운동과 관련한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해야 한다.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 등이 사용하는 유튜브와 같은 채널을 활용하면 된다.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영상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연극·뮤지컬·웹툰 등 예술 분야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다. 즉 연극·영화·영화와 같은 영상매체, 웹툰과 같은 시각 매체 등으로 만들어 교과 및 비교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영역의 ‘융합 선택’ 분야에서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역사 콘텐츠와의 대화’라는 교과목이 개설된다. 두 교과목에서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와 관련한 내용을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과-비교과 연계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 **라.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의 제정·시행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대구광역시의회가 2007년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9년 제2차 개정, 조례 제5222호), 2021년 「대구광역시 독립운동정신 진흥 조례」(조례 제5633호)와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조례 제1601호) 등을 제정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독립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정신 진흥 관련 현창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각종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입안 및 선양에 잘 반영되어야 조례 제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현재 대구광역시의회가 대구 독립운동정신을 진흥하고 선양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는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지원,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해 놓았다. 본 사업들이 좀 더 효과성을 높이려면 ‘여성독립운동 지

원 조례’, ‘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및 관리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야 한다. 이때 본 연구와 같은 자료를 활용해 조례를 제정해 법안의 시행 효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마.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보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발굴 및 소개, 책자 발간, 박물관·기념관 건립, 유적지 발굴 및 탐방로 구축, 콘텐츠 및 문화상품 개발 등이 성공하려면 ‘예비 타당성’을 조사해야 한다. 전문 연구자나 정책 입안자는 ‘설문 조사’의 형태로 대구시민의 인식정도와 요구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용 『대구지역 독립운동사』,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사』 등과 같은 역사서적 발간 시 ‘설문조사’를 해 집필 기준 및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 바.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여성독립운동의 ‘모멘텀’ 확보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관한 연구와 현장 사업은 이제 첫 삽을 떴다. 성공적인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 정책을 확립하려면 민·관 협동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독립운동계승사업회·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 대구광역시의회와 같은 지방의회,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 대구향토역사관·대구근대역사관·대구교육박물관·대구2·28민주운동기념회관 등 박물관·기념관 등이 함께 독립운동가 발굴, 아카이브 구축, 현장 사업 등을 진행해야 한다.

#### 사. 후속 작업

대구지역 중·고등학생은 대구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유튜브(41.3%), 교과서(27.1%), 여성독립운동기념관(10.3%) 등을 활용해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학생들은 의외로 교과서에서 여성독립운동·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기를 원했다. 따라서 후속 작업으로 교과 및 비교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 제작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국사편찬위원회(1969). 한국독립운동사 5.  
김희균 외 6인(2019). 대구여성독립운동인물사, 대구여성가족재단.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2010). 대구·경북 독립운동사적지.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1971). 독립운동사 3,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1977). 독립운동사 9,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2020). ‘성지’ 대구 : 대구에도 독립운동기념관이 필요하다.
- 정인열(2018). 대구독립운동사,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강주연(2020). “3.1운동에 참여한 여성독립운동가의 온라인 전시 방안 : 국립여성사전시관의 기록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주원(2020). “교과통합을 활용한 여성독립운동가 수업 개발 : 윤희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https://815gb.or.kr>)  
공훈전자자료관(<https://e-gonghun.mpv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대구광역시 공식블로그 컬러풀대구([https://blog.naver.com/daegu\\_news](https://blog.naver.com/daegu_news))  
대구광역시의회(<https://council.daegu.go.kr>)  
독립운동관련판결문(<https://theme.archives.go.kr>)  
충북여성독립운동가(<https://www.chungbuk.go.kr/cbwia/index.do>)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http://www.herstorykorea.org>)



# 부록



## 부록 1

###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대구지역 중고등학생들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에서는 대구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대구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인식정도와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본 연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자의 신상이나 의견은 법적으로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2022년 4월

#### 1. 일반적 사항

성별	①남      ②여
학교	①중학교 ②고등학교
학년	①1학년   ②2학년   ③3학년

2. 다음은 독립운동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독립운동에 대한 자기인식	① 많이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거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	독립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2	여성독립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	대구지역 독립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4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5	대구지역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6	대구지역 남성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7	대구 여성독립운동과 관련된 유적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도	① 많이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거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	국채보상운동에서 대구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2	전국 여성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3	전국 여성운동의 효시가 되었던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의 7부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4	3.1운동에서 대구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5	조선의열단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6	근우회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7	1930·1940년대 한국광복군 등과 같은 해외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대구 여성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4.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 해 주세요.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도	① 많이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거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1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여성 독립운동가를 알고 있는가?				
2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최초 3.1운동에 참여한 대구 출신 이선희(이선애)를 알고 있는가?				
3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최초 3.1운동을 이끈 신명학교 교사 임봉선을 알고 있는가?				
4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 아산지역 3.1운동을 이끈 대구 출신 한연순을 알고 있는가?				

5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구 최초 3.1운동에 참여한 대구 출신 이남숙을 알고 있는가?				
6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영남부인실업동맹회를 결성하고, 대한민국민회의 회원으로 활동한 대구 출신 이희경을 알고 있는가?				
7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광주학생운동 동조 시위에 참여한 대구 출신 김귀임을 알고 있는가?				
8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930년대 서울에서 반제동맹사건에 참여한 대구 출신 남영실을 알고 있는가?				
9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대구 출신 한태은을 알고 있는가?				
10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910년대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 대구지부장으로 활동한 유인경을 알고 있는가?				
11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대한여자애국단 샌프란시스코 지부단장 등을 맡은 대구 신명학교 교사였던 차보석을 알고 있는가?				
12	남일동패물폐지부인회를 조직해 국채보상운동을 한 정경주를 알고 있는가?				
13	조선의열단 단원으로 활동한 대구 출신 현계옥을 알고 있는가?				
14	근우회를 창립한 대구 출신 정철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5. 대구 여성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에 대한 요구를 묻는 문항입니다. 해당 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향상을 위한 요구 정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3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4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6. 대구 여성독립운동이나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해 알게 된 경로는 어디인가요?

- ① 유튜브 ② TV ③ 교과서 ④ 교과서를 제외한 책 ⑤기타 ( )

7.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해 알린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유튜브 ② TV ③ 교과서 ④ 교과서를 제외한 책  
⑤ 여성독립운동기념관 건립 ⑥ 기타 ( )

8. 대구 여성독립운동의 유적지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9. 대구 여성독립운동관련 유적지가 있다면 탐방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0. 대구에 독립운동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1. 대구에 여성독립운동기념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2.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해 널리 알리는데 좋은 방안이나 의견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해 널리 알리는데 좋은 방안이나 의견<sup>2)</sup>

- 거대 동상 건설
- 관련 프로그램 시청 활동 및 관련 교육 실시
- 교과서에 내용을 실는다
- 교과서에 넣기
- 교과서에 대구 여성독립운동에 대해 실리면 좋을 것 같다.
- 교과서에 더 깊은 내용을 실는다
- 교과서에 더 자세히 알린다
- 교과서에 실는다
- 교육과정에도 독립운동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넣으면 좋을 것 같다
- 교육방송 / 영화제작
- 기념관을 만들고 그곳에서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남녀는 없나요?
-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유튜브(알고리즘)이라 생각한다
- 다양한 매체/캠페인
- 다양한 사람들과 연령대가 시청하는 유튜브로 알리거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하면서 알리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구 남성독립운동에 대해서도 널리 알리실 건가요?
- 대구 여성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자주 언급해주거나 탐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 대구여성독립운동가의 캐릭터, 마스코트 같은 것을 만들어 널리 알린다
- 대구의 여성 독립 운동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 독립 운동에 대하여도 알려야 한다. 널리 알리고 싶다면 기업이나 학교 등의 시설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동상 건설
- 많이 노출시키기(미디어 등을 통하여)

2) 부록 1 대구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대구지역 중고등학생들 인식조사의 12번 문항에 대한 답변이다. 설문 응답자의 답변을 그대로 옮겼다.

- 박물관/교과서에 내용 수록
- 방송을 통해 많이 알린다
- 사람들의 눈에 익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홍보를 한다
- 알려진 남성/여성 운동가가 아닌 같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 대해 교육 - 더욱 많은 여성독립운동가가 알려질 수 있음
- 여성 남성을 구분하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교육이 필요하다
- 여성독립운동의 날 학교 공휴일 / 유적지 탐방
- 역사 TV 프로그램
- 영화제작
- 왜 여성독립운동만 알려요?
-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소중하게 생각하자
- 유튜브
- 유튜브 같은 SNS에 관련 정보를 올리거나 여성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한다
- 유튜브 채널 만들기
- 유튜브 채널로 동요를 해서 널리 알리면 좋을 것 같다.
-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
-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 유튜브 홍보
- 유튜브, 다큐멘터리
- 유튜브로 알린다
- 유튜브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교과서에 싣거나 창체시간에 설명을 하는 듯 알려주면 좋겠다
-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
- 유튜브에서 홍보를 한다
- 이런거 많이 하자
- 인기 있는 유튜브가 여성독립운동가를 널리 퍼뜨려준다
- 전단지를 만든다
- 첩자처럼 정보를 퍼트린다
- 퀴즈를 열어서 상품을 준다(한 문제라도 더 맞추려고 배울 듯)
- 특별교육
- 팸플릿
- 학교 교육활동 / TV방송

- 학교 내 독립운동가 교육
- 학교 수업시간을 빼고 체험학습
- 학교 영상교육
- 학교 창체시간에 교육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학교 프로그램
- 학교에 공고문을 쓴다
- 학교에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복도 같은 곳에 독립운동가의 사진과 이름, 한 일 등을 적어서 전시하면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 학교에 행사하러 오는 것
-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 학교에서 교육을 한다, 방송을 더 늘린다
- 학교에서 방송으로 틀어주기
- 학교에서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수업을 한다
- 학교에서 초기에 자유훈이나 동아리 시간을 통해 교육한다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독립운동가에 대해 가르친다.
-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공유
- 홍보를 해줘야 된다
- 홍보영상 / 수업
- MZ세대도 알 수 있도록 유튜브로 알린다
- SNS
- SNS에 알리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일 것 같다
- SNS나 교과서에서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 SNS에 홍보, 퀴즈 이벤트
- TV 스페셜 방송을 한다
- TV 채널 프로그램이나 전문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 좋겠다
- TV 프로그램 / 유튜브
- TV, 유튜브, 기념관
- TV나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여성독립운동에 대한 교육을 한다.
- TV로 알린다.
- TV에 나오게 한다
- TV프로, 유튜브 콘텐츠
- TV프로그램 만들기